

# 사회인구학적 배경에 따른 초등학생이 인지한 가족기능연구

홍달아기\* · 이남주\*\*

## 요 약

본 연구는 아동이 지각한 가족기능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사회인구학적 배경을 파악하여 아동의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배경요인을 밝히기 위한 기초조사연구이다. 4, 5, 6학년의 남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설문지 222부가 연구 분석에 사용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dow 12.0 Program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아동 본인의 주관적인 인식이 긍정적인 경우 즉, 건강하다고 지각하고, 학업성적이 좋다고 지각하고, 경제적으로 잘산다고 지각한 경우는 가족기능이 높게 나타났으며, 가족원이 다양하고 많은 확대가족의 경우 정서적 친밀감과 가족 결속력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아동의 긍정적인 사고와 가족 간의 다양한 정서적 관계가 가족기능을 좋게 한다고 볼 수 있다. 가족기능에 있어서 평균값에 의한 결과는 응집성에 대한 점수가 높게 나타나 초등학생의 연령을 고려할 때 가족 간의 친밀성이나 정서적지지, 결속에 보다 민감하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정서적인 측면은 가족을 통해서만 충족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시기의 아동에게 가족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가족기능의 차이를 통한 분석에서는 학년, 주관적 학업성적과 경제수준의 변인이 응집성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인적인 능력과 자신감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적응성은 주관적 건강상태, 거주지역, 가족유형 등의 변인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아동이 건강하고 환경이 다양할수록 가족기능을 적응성과 융통성이 있는 체계로 보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주제어** : 아동의 삶의 질, 가족기능, 정서적 친밀성, 가족 지지, 가족 응집성, 가족 적응성

논문투고일 : 2011.3.13

최종심사일 : 2011.3.30

게재확정일: 2011.4.30

\* 원광대학교 가정아동복지학과 교수

\*\* 익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연구원

Corresponding Author : Hong, Dalahgi. Dept. of Family & Child Welfare, Wonkwang University, Sinyong 344-2 Chun-Buk 570-749. E-mail: dalhong@wku.ac.kr

## I. 서론

인류사회의 존속을 위해서는 가족이 본질적인 기능을 충분히 수행해야 하는데 이 중 어느 한 기능이라도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인류사회의 존속이 불가능 하다. 현대사회에서는 가족의 크기가 과거에 비해 작아졌기 때문에 가족구성원 개개인 간의 상호작용이 빈번해지고 더욱 친밀해졌을 것이라고 보고 있으나 이러한 가족과 가족기능의 변화는 가족구성원간의 상호작용에 있어 양적인 면의 축소와 질적인 면의 깊이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요구하게 된다. 가족의 기능은 가족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에 의해 가족의 기능을 대체해주는 다양한 집단들이 등장함으로써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따라서 핵가족의 보편성에 대한 회의와 가족의 개념정립에 혼란이 초래되고 있으며 현대사회에서 가족이 기능적인가 혹은 역기능적인가 하는 문제까지 대두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가족 내외의 자원을 동원하여 변화된 가족기능을 지지·보완(이정덕, 김경신, 문혜숙, 송현애, 김일명, 1998)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가족체계의 기능성은 응집성과 적응성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이는 가족기능과 관계역동을 나타낸다. 응집성은 가족원과의 친밀감과 유대감을 나타내는 결속수준과 가족원 각자의 자율성을 나타내는 분리의 수준을 나타내는 개념이다. 건강한 가족은 어느 한 쪽의 치우침이 없이 당면상황에 따라 온 가족이 결집하거나 개인의 발전을 위하여 독립성을 존중하는 균형 잡힌 응집성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다. 적응성은 가족체계가 안정을 추구하는 수준과 변화를 지향하는 수준을 나타내는 개념이다. 따라서 가족기능의 요소인 응집성과 적응성이 아동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고 볼 수 있다. 초등학생의 환경은 일차적으로 가정환경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이차적으로는 학교환경, 또래환경의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의존적인 시기를 거쳐 독립적인 성장기에서 가족기능은 가족이 아닌 학교나 또래 사회에서의 적응과 삶의 질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특히 한국은 급속히 진행된 도시화와 서구화로 인하여 현대사회는 매우 복잡하고 경쟁적인 양상으로 변화하였고 이와 같이 급변한 사회 환경의 적응에 급급하다보니 가족기능은 약화되었으며 학력을 중시하는 한국적 풍토는 아동들을 이른 시기부터 남들과의 경쟁 속에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게 하고 있다. 이러한 심리적 압박은 자신의 의욕과 의지에 의해 뭔가를 하기보다는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불안감이 지배하게 되어 개인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기도 한다.

이에 본 연구는 학동기 아동이 지각한 가족기능이 아동의 사회인구학적 배경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내어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요인을 찾기 위한 기초자료를 얻고자 한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생이 인지한 가족 기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은 무엇인가? 둘째,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초등학생이 인지하는 가족기능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셋째, 사회인구학적 변인이 가족기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 II. 이론적 배경

### 1. 가족기능

#### 1) 개념과 조작적 정의

가족기능을 측정하려는 시도는 많은 선행연구에서 이루어져 왔으며 주로 체계론적 관점을 바탕으로 가족을 하나의 체계로 보고, 이 체계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기능하는지를 측정함으로써 이루어져왔다(Beavers & Hampson, 1990). 그런데 가족체계 내의 역동성은 가족원들이 서로 주고받는 상호작용의 내용이 복잡적이고 쌍방향으로 작용하므로, 개인이 가족체계에 또 가족체계가 개인에게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지속적인 상호작용이 가족기능에 영향을 준다. 즉 가족기능은 가족을 하나의 역동적 개방체계로 보고 가정 밖의 환경 및 가족 하위 체계들 간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둔 가족체계이론에 근거하여 파생된 개념이며(박선영, 1998), 가족 기능은 어떤 정해진 목적이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인 또는 가족 구성원들에게 맡겨진 모든 작용이라 할 수 있다(Miller & Janosik, 1980). 또한 가족의 역할 및 행위로서의 가족행동을 의미하며 가족구성원의 욕구충족이나 사회의 유지 및 존속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와 관련된 개념이다(김순옥, 2001; 유영주, 2004). 따라서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가족기능을 가족이 살아가기 위해 수행하는 역할 및 행위라고 정의한다. 한편 가족기능을 평가할 수 있는 모형으로는 Beavers체계모델, 가족환경모델, McMaster 모델, 복

합순환 모델 등이 있다. Olson, Russell과 Sprenkle(1983)이 개발한 복합순환모델(Circumplex Model)은 응집성, 적응성이 순환모델의 두 축이 되고 의사소통을 응집성과 적응성을 촉진하는 축매차원으로 규정하였으며 가장 기능적인 가족은 응집성과 적응성 각각에서 중간 수준에 위치한 가족이며 양극으로 갈수록 역기능적인 가족이라고 보았다. 이후 Olson 등(1992)은 후속 연구를 통해 문제를 가진 가정을 제외한 일반가정에 대해서는 응집성과 적응성이 높을수록 기능적인 가족이라 하였다. 가족기능의 하위영역인 응집성과 적응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응집성

응집성이란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에게 가지는 정서적 유대감 또는 가족이 서로 결속되는 정도이다(Farrell & Barnes, 1993; Olson, 2000; Olson et al., 1983). 이는 가족의 응집성이나 가족 구성원간의 친밀감 또는 거리감, 정서적 지지와 같은 개념으로써 가족 구성원간의 상호작용 과정 및 그 결과를 결정짓는 가족의 2차적 기능이라 할 수 있다(Kathleen & Brommel, 1986). 본 연구에서는 가족응집성을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에게 가지는 정서적 유대감으로 정의한다.

### (2) 적응성

적응성은 상황적·발달적 스트레스에 대응하여 자체의 권력구조·역할관계·관계규칙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족체계의 능력으로 정의되며 응집성과 함께 가족관계 및 그 기능을 이해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개념이다. Olson 등(1983)은 가족체계가 안정을 추구하는 수준과 변화를 지향하는 수준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적응성을 제시했다. 즉, 적응성은 상황적·발달적 스트레스에 대하여 가족이 위기나 문제에 직면했을 때 가족 구성원들이 가족체계의 역할 및 규칙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이것은 가족체계의 역동성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융통성 있는 체계는 변화와 안정성의 균형을 잘 이룰 수 있다는 데 근거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적응성을 상황적·발달적 스트레스에 대하여 가족의 규칙 및 역할에 대하여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는 정도라 정의한다.

## 2) 가족기능과 아동발달 특성

가족기능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박창기(2002)는 가족기능이 기능적인가 역기능적인가 하는 문제는 가족원 개개인의 발달은 물론 전체사회에 대해서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아동기의 경우 발달상의 특징에 따라 가족구성원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습득한 가치관 및 생활태도는 아동의 성격형성·대인관계·자아 발달 등에 있어 전 생애에 걸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족기능은 아동의 성장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라 하였다. 엄명용(1997)은 가족기능이 부정적일수록 아동의 부정적 행동이 많이 나타나며, 가족의 체계유형이 보다 원활할수록 아동의 태도는 긍정적 태도를 나타낸다고 하며 이정렬(1986)은 가족 간의 밀접한 관계는 아동 성격형성과 자아발달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반면, 애정이 결핍되고 전체적인 분위기와 가족 내의 상호관계가 원활하지 않은 가정환경은 아동의 성격형성과 자아발달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고 하였고 허승연(1998)은 가족의 결속력이 낮을수록 아동이 우울 및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밖에 성영혜와 신귀순(2001)은 가족기능이 원활할수록 아동의 자기역량지각이 높았으며, 대인관계성향에서도 긍정적으로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하려는 모습을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통해 가족의 기능적 특성이 원활할수록 아동 스스로가 자기역량을 높게 지각한다고 볼 수 있다. 기능적인 가족은 가족 구성원들 간의 관계가 친밀하고 정서적지지가 잘 이루어지며 동시에 구성원들의 개별성을 인정해주며(Goldenberg & Goldenberg, 1991), 가족기능 수준에 따라 청소년의 적응정도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전귀연, 1993; 전귀연, 최보가, 1993). 즉, 가족기능이 기능적인 가족의 청소년들이 적응을 잘하고 불안과 우울을 더 적게 느끼고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적응을 더 잘 한다는 것이다.

한편 이윤숙(2002)은 가족기능을 가족응집력과 가족적응력으로 구분한 연구에서는 가족적응력이 높은 가정의 자녀일수록 독립심과 책임감이 많고 동정적이며 타인을 수용하고 대인관계에서 사교적이고 우호적이었으며 가족응집력이 높은 가정의 자녀일수록 동정심이 많고 타인을 수용하며 대인관계에서 사교적이고 우호적이라고 하였다.

가족기능과 행복감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가족기능과 가족관계에 대한 아동의 만족도가 아동의 정서적·행동적 양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가족구성원들 간의 심리적 유대가 높을수록 심리적으로 온화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되었으며 또한 구성원들이 각각 독립적으로 행동할 때 아동은 심리적으로 고통을 많이 받으면서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양상을 나타낸다

고 하였다(이길홍, 김현수, 민병근, 1982). 이는 곧 아동은 가족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가족기능 및 가족관계를 원만히 지속시키는 것이 인성 및 사회성이 발달하는 아동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의미한다. 또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가족이 잘 기능을 할수록 신경증적 경향, 정신장애적 경향, 반사회적 경향이 낮다고 보고하고 있다(윤찬정, 1995). 가족기능이 좋은 가족일수록 가족 간의 지지도가 높고 개인의 역할수행이 용이하다고 볼 수 있으며, 가족의 안녕과 발전을 위해서는 가족성원과의 상호협동과 가족 내의 자원을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권윤정, 1995). 이밖에 또래관계 및 가족기능과 아동 외로움 지수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결과 남, 여 아동 모두 가족기능이 건강하고 또래관계가 친밀할수록 외로움을 적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승진, 2007). 따라서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통해 아동이 지각한 가족기능은 원만한 인성과 사회성 발달, 개인의 역할수행, 또래관계형성, 외로움 등 행복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을 알 수 있다.

가족은 구성원 개개인이 인간으로서 갖는 기본 욕구를 충족시키며, 가족 상호간의 기능과 각자의 역할을 수행해 감으로써 가족 전체의 안녕을 도모하는 집단임을 고려할 때 가족이 잘 기능하도록 하는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김동연, 2003).

이상의 연구를 종합해 볼 때 아동이 성장하고 발달하는 과정에서 지각된 가족기능이 긍정적인 경우 성격형성과 자아발달, 대인관계 등 아동의 인지적·정서적·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아동이 지각한 가족기능이 부정적일 수록 성격형성, 자아발달 등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족기능은 아동의 행복감에 대한 중요한 심리적 요인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관련연구고찰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Olson, Portner 그리고 Lavee(1985)에 의해 제작된 FACESⅢ 척도를 참고로 응집성은 도움과 의논, 가족의 경계, 여가시간 및 친구의 공유, 정서적유대감, 활동의 공유와 행사참여에 관한 요인들로 구성하고, 적응성은 지도력, 훈육방식, 통제, 가족규칙, 가족구성원의 역할 융통성에 관한 요인들로 구성한다.

또한 개인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개인을 둘러싼 환경으로부터 받은 영향을 뜻하는 사회적 요인과 개인적 특성을 나타내는 개인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정혜영, 이경화, 2008). 아동기는 Piaget의 인지발달 단계 중 구체적 조작기에 해당되는 단계로써 자신과 타인에 대한 지각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신이 속한 환경에 대해 어떻게 지각하는가에 따라 가족기능에 대한 지각이 다를 것이다(강나정, 2008).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자신이 속한 환경에 대해 어떻게 지각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아동이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설정하였다.

### III. 연구설계

#### 1. 조사대상자의 특성

본 조사는 전라북도 내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4, 5,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이는 아동이 자신 및 타인에 대한 조망이 10세 이후에 가능하다는 연구에 따른 것이다(Cole & Cole, 1993). 조사대상을 모집하기 위해 전라북도 내 농촌 및 도시에 소재한 K초등학교, H초등학교, M초등학교 총 3개 초등학교를 임의표집 하여 소재지가 읍·면 단위인 농촌지역 초등학교에서 3학년, 소재지는 도시이지만 학생 수가 적은 농촌형의 소규모 초등학교에서 3학년, 도시지역 초등학교에서 학년별 2학년씩 6학년 총 12학급을 선정 한 후 234명의 남녀 아동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구분		명(%)	구분	명(%)	
성별	남자	117( 52.7)	출생순위	외동자녀	17( 7.6)
	여자	105( 47.3)		첫째자녀	63( 28.4)
	계	222(100.0)		중간자녀	33( 14.9)
학년	4학년	53( 23.9)		막내자녀	109( 49.1)
	5학년	73( 32.9)	계	222(100.0)	
	6학년	96( 43.2)	아빠직업	사무	46( 20.7)
	계	222(100.0)		서비스	16( 7.2)
종교유무	있다	146( 65.8)		판매	30( 13.5)
	없다	76( 34.2)		단순노무	3( 1.4)
	계	222(100.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26( 11.7)
주관적 건강상태	매우 건강하다	94( 42.3)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27( 12.2)
	건강하다	116( 52.3)		농업	20( 9.0)
	건강이 나쁜 편	12( 5.4)		전문가	23( 10.4)
	계	222(100.0)		기술공 및 준전문가	6( 2.7)
주관적 학업 성적	잘하는 편	90( 40.5)		무직	11( 5.0)
	보통	88( 39.6)	무응답	14( 6.3)	
	노력 필요	44( 19.8)	계	222(100.0)	

	계	222(100.0)			
주관적 경제 수준	잘사는 편	113(50.9)	엄 마 직 업	사무	21( 9.5)
	보통이하	109(49.1)		서비스	22( 9.9)
	계	222(100.0)		판매	28( 12.6)
				단순노무	14( 6.3)
거주지	농촌	56( 25.2)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4( 1.8)
	도시	166( 74.8)		농업	8( 3.6)
	계	222(100.0)		전문가	44( 19.8)
방 과 후 이용 시설	학원	147( 66.2)		기술공 및 준전문가	14( 6.3)
	지역아동센터	65( 29.3)		무직 또는 주부	62( 27.9)
	기타	10( 4.5)		무응답	5( 2.3)
	계	222(100.0)	계	222(100.0)	
가족 유형	핵가족	150( 67.6)	직 업 유 무	맞벌이	140( 63.1)
	확대가족	56( 25.2)		홀벌이	81( 36.5)
	한부모가족	15( 6.8)		무응답	1( 0.4)
	무응답	1( 0.4)		계	222(100.0)
	계	222(100.0)			

##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질문지는 응답대상이 초등학생임을 감안할 때 중간 응답에 집중될 우려가 있으므로 중간 값을 없애고 4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구성하였다. 설문내용은 가족기능과 사회인구학적 배경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척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의 가족기능 척도는 Olson 등이 1985년에 제작한 FACES III(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Evaluation Scales III)를 기본으로 하였다.

FACES III는 원래 Olson의 가족체계 모델에서 제시된 양방향성인 응집성과 유연성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였으나, FACES III를 사용한 경험적 연구들에 의해서 곡선적인 가설을 포

기하고, 역기능-기능의 직선적인 측정치를 내도록 되어있다(Olson, et al., 1992). 원 척도는 5점 리커트식 방법으로 응집성을 측정하는 10개의 문항과 적응성을 측정하는 10개의 문항으로 총 20개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척도는 선행연구들에서 사용했던 문항들을 검토하여 연구대상이 아동임을 감안하여 원래 의미를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구성하여 아동이 이해하기 쉽도록 문항을 수정하였다. 수정 및 보완과정을 거쳐 전공자의 안면 타당도를 검증은 통해 최종 20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가족기능 측정도구에 대한 공통성을 분석한 결과 여가시간 및 친구의 공유, 활동의 공유와 행사참여, 통제에 대해서 공통성이 .40보다 낮아 측정도구를 구성하는데에는 부족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제외한 16문항으로 도움과 의논, 가족의 경계, 정서적 유대감, 훈육방식, 지도력, 가족규칙, 가족 구성원의 역할 융통성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공통성(communalities)에 관한 내용으로 각 변수의 초기값(initial)과 주성분 분석에 의한 각 변수의 추출값(extraction)이 제시되어 있으며 각 변수의 공통성은 추출된 요인에 의해 설명되는 비율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공통성이 낮은 변수는 요인분석에서 제외함이 좋다. 일반적으로 공통성이 .40이하이면 낮다고 판정한다. 즉 최종 문항은 요인 추출법으로 주성분법(Principle Components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지정한 고유치 이상의 값을 갖는 요인만을 추출하였다. 공통요인모형에 단일주축분해방법과 직각회전(Varimax)회전을 실시하였다. 점수는 4점 ‘매우 그렇다’, 3점 ‘그렇다’, 2점 ‘그렇지 않다’, 1점 ‘전혀 그렇지 않다’로 평가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응집성과 적응성이 높다고 해석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가족기능의 응집성문항의 Cronbach $\alpha$  계수는 .83, 적응성의 Cronbach $\alpha$  계수는 .87이었다.

사회인구학적배경을 측정하는 문항은 총 12문항으로 성별, 학년, 종교유무, 주관적 건강상태, 주관적 학업성적, 주관적 경제수준, 거주지역, 방과후 이용시설, 가족유형, 출생순위, 부의 직업, 모의 직업 등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분석과정에서는 부의 직업과 모의 직업에 대한 재분류 과정을 거쳐 맞벌이와 홀벌이를 구분하였다.

### 3. 자료처리 및 분석

본 연구에서는 회수된 설문지 중 내용 기재가 부실하거나 신뢰성이 낮은 설문지를 제외한 222부가 연구 분석에 사용되었다. 수집된 설문지는 SPSS Window 12.0 Program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처리 하였다.

첫째, 구성된 척도에 대한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자료 분석은 수립된 통계 변수를 정리하고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셋째,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아동이 지각하는 가족기능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 ANOVA를 실시하였으며 사후검증을 위하여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하였다. 사회인구학적 변인이 가족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IV. 연구결과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가족기능의 차이와 사회인구학적 변인이 가족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t-Test, ANOVA,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추후검증을 위하여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성별, 종교유무, 가족유형, 출생순위, 부와 모의 직업, 직업유무는 가족기능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서 이후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결과는 <표 2>, <표 3>과 같다.

<표 2>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가족기능의 차이

변 인	구 분(N)	가족의 기능					
		응집성		적응성		전체	
		M	(SD)	M	(SD)	M	(SD)
학년	4학년(53)	3.53	(.50)b	2.31	(.81)	2.92	(.56)
	5학년(73)	3.44	(.41)ab	2.48	(.74)	2.96	(.49)
	6학년(96)	3.32	(.55)a	2.44	(.82)	2.88	(.54)
	계(222)	3.41	(.50)	2.42	(.79)	2.92	(.53)
	F값	<b>3.55*</b>		.73		.54	
주관적 건강상태	매우 건강하다(94)	3.50	(.48)	2.59	(.86)b	3.04	(.54)b
	건강하다(116)	3.35	(.50)	2.32	(.69)ab	2.83	(.48)ab
	나쁜 편이다(12)	3.28	(.62)	2.13	(.93)a	2.70	(.69)a
	계(222)	3.41	(.50)	2.42	(.79)	2.92	(.53)

	F값	2.99	<b>3.94*</b>	<b>5.43**</b>
주관적 학업성적	잘하는 편(90)	3.49 (.46)b	2.52 (.82)	3.00 (.50)
	보통(88)	3.40 (.48)ab	2.39 (.78)	2.89 (.52)
	노력필요(44)	3.27 (.59)a	2.28 (.74)	2.77 (.56)
	계(222)	3.41 (.50)	2.42 (.79)	2.92 (.53)
	F값	<b>3.14*</b>	1.06	3.00
주관적 경제수준	잘사는 편(113)	3.50 (.46)	2.53 (.79)	3.02 (.51)
	보통이하(109)	3.31 (.52)	2.31 (.78)	2.81 (.53)
	계(221)	3.41 (.50)	2.42 (.79)	2.92 (.53)
	t값	<b>2.90**</b>	<b>2.04*</b>	<b>2.93**</b>
거주지역	농촌(56)	3.32 (.52)	2.13 (.81)	2.73 (.50)
	도시(166)	3.44 (.49)	2.52 (.76)	2.98 (.52)
	계(222)	3.41 (.50)	2.42 (.79)	2.92 (.53)
	t값	2.34	<b>10.32**</b>	<b>9.93**</b>
가족유형	핵가족(150)	3.40 (.51)	2.52 (.79)b	2.96 (.54)
	확대가족(56)	3.48 (.41)	2.21 (.82)a	2.84 (.49)
	한부모가족(15)	3.20 (.64)	2.27 (.53)a	2.73 (.50)
	계(221)	3.41 (.50)	2.42 (.79)	2.91 (.53)
	F값	1.83	<b>3.54*</b>	2.00

\*p<.05, \*\*p<.01

주. ab는 사후검증의 결과로 다른 문자끼리는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의미함

## 1. 학년에 따른 가족기능

학년에 따른 가족기능의 평균값을 살펴보면 4학년(M=3.53)아동이 응집성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른 가족기능의 차이는 분석 결과 응집성(F=3.55, p<.05)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검증 결과 학년에 따른 응집성에서 4학년 집단과 6학년 집단 간 차이를 보였다.

## 2. 주관적 건강상태에 따른 가족기능

주관적 건강상태에 따른 가족기능의 평균값을 살펴보면 ‘매우 건강하다’(M=3.50)고 지각한 아동이 응집성과 적응성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건강상태에 따라 가족기능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전체적(F=5.43, p<.01)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하위영역별로 주관적 건강상태에 따라 적응성(F=3.94, p<.05)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검증 결과

적응성에서 ‘매우 건강하다’, ‘건강이 나쁜 편이다’에서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주관적 학업성적에 따른 가족기능

주관적 학업성적에 따라 응집성( $F=3.14, p<.05$ )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사후검정 결과, 학업성적이 높다고 지각한 학생의 응집성은 3.49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각한 학생의 3.27보다 높았다.

### 4. 주관적 경제수준에 따른 가족기능

주관적 경제수준에 따라서 가족기능의 평균값을 살펴보면 ‘잘 사는 편’( $M=3.02$ )이라고 지각한 아동이 가족기능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경제수준에 따라 가족기능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전체적( $t=2.93, p<.01$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하위영역 중 응집성( $t=2.90, p<.01$ ), 적응성( $t=2.04, p<.05$ )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5. 거주지역에 따른 가족기능

거주지역에 따른 가족기능의 평균값을 살펴보면 도시지역( $M=3.44$ ) 아동이 응집성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다. 거주지역에 따라 가족기능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전체적( $t=9.93, p<.01$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거주지역에 따라 적응성( $t=10.32, p<.01$ )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도시지역 아동이 농촌지역 아동보다 적응성에 대한 지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기능의 하부요인별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응집성( $M=3.41$ )이 적응성( $M=2.42$ )보다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 6. 가족유형에 따른 가족기능

가족유형에 따른 가족기능의 평균값을 살펴보면 응집성에서 확대가족(M=3.48)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 가족유형에 따른 가족기능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적응성(F=3.54, p<.05)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핵가족 형태에서 생활하는 아동이 적응성에 대한 지각이 높게 나타났다.

## 7. 사회인구학적배경이 가족기능에 미치는 영향

<표 3> 사회인구학적배경이 가족기능에 미치는 영향

구분	응집성	적응성	가족기능
	$\beta$	$\beta$	$\beta$
학년(5학년)	-.06	.11	.05
학년(6학년)	-.14	.15	.04
주관적 건강상태(건강하다)	-.11	-.15 *	-.17 *
주관적 건강상태(나쁜편)	-.05	-.11	-.11
주관적 학업성적(보통)	-.06	-.07	-.08
주관적 학업성적(노력필요)	-.12	-.11	-.14
주관적 경제수준(보통이하)	.09	.09	.11
거주지역(도시)	.09	.17 *	.17 *
가족유형(확대가족)	.06	-.15 *	-.09
가족유형(한부모가족)	-.05	-.04	-.05
$R^2$	.09	.12	.13
F	2.17	3.00**	3.08*

\*p<.05, \*\*p<.01

사회인구학적배경이 가족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모두 선택방법에 의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가족기능 전체에 거주지역( $\beta=.17$ , p<.05), 주관적 건강상태( $\beta=-.17$ , p<.05)순으로 가족기능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인구학적배경이 가족기능을 설명하는 설명력은 13%로 나타났다.

적응성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거주지역( $\beta=.17$ , p<.05), 가족유형( $\beta=-.15$ , p<.05), 주관적 건강상태( $\beta=-.15$ , p<.05)순으로 가족기능의 적응성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인구학적배경이 적응성을 설명하는 설명력은 12%로 나타났다.

##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아동이 지각한 가족기능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사회인구학적 배경을 파악하여 아동의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배경요인을 밝히기 위한 기초조사연구이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족기능은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 학년, 주관적 건강상태, 주관적 학업성적, 주관적 경제수준, 거주지역, 가족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성별, 종교유무, 가족유형, 출생순위, 부모직업, 직업유무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유의한 차이를 보인 요인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년에 따라 가족기능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응집성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저학년 일수록 응집성을 높게 지각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빈곤아동을 대상으로 한 고경은(2002)의 연구에서 응집성과 유연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연구결과와는 차이를 보여주며 아동의 학년은 가족기능에 영향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저학년 일수록 응집성에 대한 지각이 높았는데 이는 저학년의 경우 주위의 친구 및 선생님 등 새로운 관계로 확대되어 가기 전 단계로서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 간에 느끼는 정서적 유대감을 더 강하게 지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주관적 건강상태에 따른 가족기능의 차이는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다고 지각할수록 적응성에 대한 지각이 높게 나타났다. 집단 간 차이는 '매우 건강하다', '건강이 나쁜 편이다'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응성은 상황적 발달적 스트레스에 대하여 가족의 규칙 및 역할에 대하여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는데 본 결과는 아동의 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한 지각이 가족기능에 영향요인임을 나타내고 있다. '자신이 건강하다'고 지각할수록 적응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상황적 혹은 발달적 스트레스에 대응할 수 있는 심리적 적응력을 갖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주관적 학업성적은 '매우 잘함' 이라고 지각한 아동이 응집성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학업성적이 좋은 집단이 가족 간의 정서적 결속이나 유대감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 성적이 상인 집단이 하인 집단보다 응집성과 적응성이 높게 나타났다는 박수진(2009), 김주연(1997)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로 자신이 학교성적이 좋다고 지각하는 아동은 가족과의 결속이나 지지감을 많이 느낀다고 해석할

수 있다. 집단간 차이는 ‘많은 노력이 필요함’으로 응답한 아동의 집단만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학업성적에 있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각하는 아동은 가족 내에서도 가족 간의 정서적 지지를 낮게 지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가족들의 많은 격려가 더욱 필요한 집단이라고 보여 진다.

주관적 경제수준은 ‘매우 잘 사는 편’이라고 지각한 아동 집단이 응집성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집단 간에도 유의한 차이가 있어 자신의 경제적 수준을 높게 지각하는 집단일수록 가족 간의 정서적 유대감과 결속정도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이는 경제수준이 ‘잘사는 편’이라고 응답한 아동이 ‘아주 못사는 편’이라 응답한 아동보다 응집성과 적응성이 높게 나타났다는 박수진(2009), 이종민(2007)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거주지에 따른 결과는 도시지역 아동이 응집성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다. 도시지역집단의 아동이 가족의 친밀감과 결속정도를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적응성보다 응집성의 점수가 낮게 나타나 본 연구대상 아동들은 정서적지지, 친밀감, 가족 간의 결속정도에 대해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가족유형에 따른 척도의 평균값을 살펴보면 확대가족이 응집성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여 확대가족 아동이 정서적 지지감과 정서적 유대감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확대가족은 다양한 세대로 구성되어 있어서 가족 간 상호작용이 핵가족보다는 활발할 것으로 추측할 수 있고, 이러한 가족유형은 아동의 가족기능에 대한 지각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핵가족 형태에서 생활하는 아동이 적응성에 대한 지각이 높았다. 이는 부모자녀로 구성된 핵가족 형태가 역할과 규칙 등의 통제에 대하여 융통성 있게 적절히 반응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하면 아동 본인의 주관적인 인식이 긍정적인 경우 즉, 건강하다고 지각하고, 학업성적이 좋다고 지각하고, 경제적으로 잘산다고 지각한 경우는 가족기능이 높게 나타났으며, 가족원이 다양하고 많은 확대가족의 경우 정서적 친밀감과 가족 결속력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아동의 긍정적인 사고와 가족 간의 다양한 정서적 관계가 가족기능을 좋게 한다고 볼 수 있다. 가족기능에 있어서 평균값에 의한 결과는 응집성에 대한 점수가 높게 나타나 초등학생의 연령을 고려할 때 가족 간의 친밀성이나 정서적지지, 결속에 보다 민감하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정서적인 측면은 가족을 통해서만 충족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시기의 아동에게 가족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가족기능의 차이를 통한 분석에서는 학년, 주관적 학업성적과 경제수준의 변인이 응집성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인적인 능력과 자신감 등에 대해 긍정적으

로 지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적응성은 주관적 건강상태, 거주지역, 가족유형 등의 변인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아동이 건강하고 환경이 다양할수록 가족기능을 적응성과 융통성 있는 체계로 보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상을 종합하여 본 연구에 대한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설문지를 통해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아동이 가족기능을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으나 아동은 자신의 응답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응답을 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면접조사가 함께 병행된다면 더 신뢰도가 높은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본 연구대상은 전라북도 내의 농촌 및 도시에 소재한 초등학교 4, 5, 6학년 아동의 일부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 참 고 문 헌

- 강나정(2008).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과 사회적지지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경은(2002). 빈곤아동이 지각한 가족기능과 학교적응과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윤정(1995).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이 인지하는 가족기능과 그의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동연(2003). 가족기능이 초등학생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순옥(2001). 부부의사소통 프로그램개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6(1)**, 137-158.
- 김주연(1997). 가족기능에 따른 아동의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선영(1998). 가족기능 및 인성특성과 청소년의 외로움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수진(2009). 아동이 지각하는 가족기능과 성취동기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창기(2002). 농촌지역 조부모-손자녀가족의 가족기능에 관한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성영혜, 신귀순(2001). 가족의 기능과 아동의 자기역량지각 및 대인관계성향과의 관계: 가족적응력과 가족결속력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회지 6(2)**, 45-63.
- 엄명용(1997). 아동의 부적응행동 및 가족기능 양상과 가족 체계 유형과의 상호관계. **한국사회복지학회지 32(2)**, 235-266.
- 유영주(2004). 가족강화를 위한 한국형 가족건강성 척도개발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9(2)**, 119-151.
- 윤찬정(1995). 가족의 기능성과 개인의 인성특성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길홍, 김현수, 민병곤(1982). 학생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가정의 심리풍토 특성과의 관계에 관한 상관분석. **신경정신의학 21(4)**, 611-627.
- 이승진(2007). 또래관계 및 가족기능과 아동 외로움 지수의 상관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윤숙(2002). 가족기능성이 청소년기 자녀의 대인관계 성향에 미치는 영향. 수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덕, 김경신, 문혜숙, 송현애, 김일명(1998). **결혼과 가족의 이해**. 학지사.
- 이정렬(1986). 가정환경 변인이 아동의 자아개념 형성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종민(2007). 아동이 지각한 가족기능, 귀인 양식과 아동의 성취동기와의 관계. 수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귀연(1993).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 및 가족체계유형이 청소년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귀연, 최보가(1993).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 및 가족체계 유형이 부모-청소년기 자녀관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1(3), 157-173.
- 정혜영, 이경화(2008). 아동이 지각하는 사회적지지, 자기조절력, 주관적 안녕의 인과적 구조 분석. **한국아동학회지** 29(4), 167-179.
- 허승연(1998). 경제위기로 인한 부모의 양육태도 변화와 가족 응집성 변화가 아동의 디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eavers, W. R., & Hampson, R. B.(1990). *Successful Families*. New York; Norton.
- Cole, M. & Cole, S. R. (1993). *The development of children*. New York : Scientific American Books.
- Farrell, M. P., & Barnes, G. M.(1993). Family system and social support: A test of the effect of cohesion and adaptability on the functioning of parents and adolescent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5(1), 119-132.
- Goldenberg, I. & Goldenberg, H. (1991). *"Family therapy": An overview*. Pacific Grove: Brooks/Cole Publishing Company.
- Kathleen, L. A., & Brommel, B. J.(1986). *Family communication: cohesion and change(2nd eds.)*. Illinois: Scott, Foresman and Company.
- Miller, J. R. & E.H. Janosik. (1980). *Family-focused care*. New York; McGraw Hill Book Co. 54
- Olson, D. H. (2000). Circumplex model of marital and family system. *Journal of Family Therapy*, 22(1), 147-164
- Olson, D. H., McCubbin, H. I., Barnes, H., Larsen, A., Muxen, M., & Wilson, M. (1992). Family inventories. family social sc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St Paul, MIN.
- Olson, D. H., Portner, J., & Lavee, Y. (1985). FACESIII. Family social sc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St Paul, MIN.
- Olson, D. H., Russell, C. S., & Sprenkle, D. H. (1983). Circumplex model of marital and family systems : VI. Theoretical Update dimensions, *Family Process*, 22(1), 3-28.

Abstract

## The Study of Family Functions according to Socio-demographic Background: Children's Perspectives

Hong, Dalah-Gi\* · Lee, Nam-Ju\*\*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socio-demographical background and family functions which a child perceives. These findings would be a key figures of the child's quality of life.

First, in order to find out the reliability of the composed criterions, there were factorial and reliability analysis. Second, with a view to investigating socio-demography frequency analysis method is used to get the results of frequency, percentage, average and standard deviation. Third, initiated by t-Test, ANOVA and regression analysis, this study found out the difference of the family functions which a child conceives as socio-demographical transition, and used Duncan's Multiple Range Test for the later verification.

The results were as follows:

As a child, himself, subjectively thinks positive, in other words, as he or she perceives that he or she is healthy, having good scholastic performance, having opulent economic conditions, shows high family competence. In addition, as one has large, diversified family members, likely to shows more emotional intimacy and social cohesion. Therefore child's positive thinking and various emotional relations in between family eventually enhance the family functions. In family functions, the median result is that as score of the coherence is high, as considering age of elementary schoolchild, child perceives more sensitive to emotional-intimacy, support and coherence. It needless to say the importance of the family that these emotional side can be fulfilled only by family relationship.

**Key Words** : child's quality of life. family functions, emotional-intimacy, Family support, Family Cohesion, Family Adaptability

---

\* Professor, Dept. of Family & Child Welfare, Wonkwang University  
\*\* Researcher, Iksan Healthy Family Support Center